

▪ 교회소식 ▪

세월호유가족방문 : 오늘 예배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 중고등부실에서 유가족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폐제 기도회 : 폐제 찬양과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에 있습니다.

사랑의 빵 : 일전에 교회에서 받아 가신 사랑의 빵 저금통을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당회 : 다음 주일 오후 1:30 친교실에서 당회가 열립니다.

세례입교교육 : 이번 성탄절에 세례와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10일(토) 오후 2시, 입교교육은 17일(토) 오후 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생협 : 제주도 무농약 꿀 주문예약 받습니다. 10kg 상자 30,000원(택배비포함) 12월 5일 배송

신앙실천 : 매일 저녁 이 나라를 위해 촛불을 켜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마 1:18-25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정민 장로	남인자 집사

12월	1부 영접위원	박숙미
	1부 헌금위원	이부용
	2부 영접위원	김정민 송형운 추현영 하미림 박진숙 이해령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진정숙

오늘 식당 봉사 : 박성실 운영미 김향자 손미자 허명선 김영호 장동훈 허호범
 다음 주 식당봉사 : 권미숙 조경자 최옥자 최미자 유금주 서안나 국지연 이경준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4여선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모으로
 상의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대림절 2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10. 전능왕 오셔서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명과 구원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속히 찾아와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어둠속에서 갑갑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는 날을 꼭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울함과 분노의 기운이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잘못을 저지른 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도 자기의 잇속을 계산하는 정치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 교 독 문 116. 구주강림(2)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목회기도 김기석 목사
- 2부응 답 송 찬양대
- 2부찬 양 104. 곧 오소서 임마누엘 다 함께
- ▲ 성경봉독 시 101:1-8 1. 인도자
..... 11. 최형균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2부찬 양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대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세기	이소애	고숙이	곽상준	최경미	권미숙	권미정	권채영	권혁순
박해경	김문주	김승현	김수진	김애경	김영란	김영희	김윤수	박상호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주영	김지현	김지호	전혜리	김진우	임미진	김철수
유영남	김해선	김희선	황정희	박규석	박경선	박미연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옥식	박인혁	박창운	허은미	방문성	박해경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서원금
송형운	하미림	신정훈	이은미	신진식	변해정	안종일	정현주	오슬기	오자영
우경환	유금주	유중희	유지은	윤성종	김윤정	이계선	이소숙	이근식	이영신
이미리	이범준	송상경	이용현	류정욱	이상준	이성범	권현오	이시경	이영욱
장은주	이왕준	장동훈	정은선	장병준	박소현	장재영	김재영	정완수	김재광
임주빈	최현옥	장정훈	정은자	조지연	최미자	최숙	최윤화	최종원	최진성
정원석	김현영	정현숙	조경희	조지연	최미자	최숙	최윤화	최종원	최진성
최영은	최철수	곽권희	최형준	강경화	하현철	최성애	한상균	한완식	임정자
한훈식	허준호	홍소형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감사헌금

강석남	김영호	김인석	이선화	김중수	이순정	김향자	박병구	김인순	박윤정
박재영	이현정	변승호	서원금	송동준	김진경	이수자	임설희	정영례	정의도
조관행	홍선희	조성재	조혜윤	최영민	최형서	추은총	무명13		

녹색꿈헌금

송희원 안종일 정현주 이미휘 임선양 신현숙 무명3

생일감사헌금

강상연 권채영 송양진 송희원 송채원 송우석 최영은 최진성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희망의 바깥은 없다

희망의 바깥은 없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낡은 것들 속에서
 짝튼다 열고 시들어서 흠뻑이 된 겨울 이파리
 속에서 씩바귀 새 잎은 자란다
 희망도 그렇게 쓰디쓴 향으로
 제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지금
 인간의 얼굴을 한 희망은 온다
 가장 많이 고뇌하고 가장 많이 싸운
 굼은 상처 그 밑에서 새살이 돋는 것처럼
 희망은 스스로 균열하는 절망의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자라난다
 안에서 절망을 끌어안고 뒹굴어라
 희망의 바깥은 없다

- 도종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둔 세상에 나아가라
 네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 받는 자 일으키라
 네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둔 세상에 나아가라
 네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둔 세상에 나아가라
 네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세상으로

- 말씀 **악인의 입을 다물게 하고**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2부찬양 4.16합창단
-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 봉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악과 거짓에 저항하며 사십시오. 진리와 정의의 승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주눅이 들어 힘써 저항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진리와 정의의 주님을 따라 일어나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불을 밝히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 축복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끝없이 패배하는 삶을 한없이 긍정하다

이 실험, 이 모험을 즐기지 않고 어떻게 교문주의자가 되겠는가. 엄숙한 자들, 진지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실험이 실패들의 연속으로 보일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끊임없는 여정 자체를 실패의 증거로 삼을 것이다.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피로를 느낄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들은 우리의 성공들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무도 실패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만 실패할 것” 이기에.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이전의 실패들, 이전의 성공들로부터 쉽게 떠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언제든 쉽게 떠날 수 있을 만큼 가벼워지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웃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웃으면서 시작하자고 말한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세상에 퍼진 <코문주의자 선언>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그 선언자들의 자유로운 정신을 사랑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걸여된 자본, 국가, 가족 등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들은 걸여를 채우려 하지 않고 그 걸여를 버려버렸다. 그들은 걸여 자체를 걸여하게 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 박애를 얻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얻기도 전에 버려버렸다. 걸여감, 그것이 쇠사슬임을 알았다. 걸여감을 지닌 자는 떠나지 못한다. 걸여된 것을 얻고자 매달리기 때문이다. 총만한 자는 어디로든 떠날 수 있다. 매달릴 곳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매달릴 곳을 갖지 않은 자야 말로 진정한 총만한 자이다. 가볍게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정신의 위대함을 말해준다.

자, 우리도 웃으며 떠날 시간이다!

_ 고병권·이진경 외, <코문주의 선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

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히 11:8) 라는 말씀에 대한 이보다 더 좋은 주석, 더 나은 강해 설교가 또 있을까? 아무도 실패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실패하는 것, 그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는 말이 또 있을까?

뭔가 발랄한 패배다. 쿨한 패배다. 하지만 우리네 삶이란 패배를 기분 좋게 뇌까릴 수 없을 만큼 절박할 때가 많다. 피눈물이 나는 패배를 거듭거듭 당하고 종내는 확인사살까지 당하면서도 과연 희망이란 사치를 내뱉을 수 있을까. 송강호는 <평화, 그 아득한 희망을 걷다>에 실린 옥중 일기에서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패자의 곡조를 읊조린다.

정의가 불의에 의해 처형당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1940년대 (나치 치하) 독일에서도, 그리고 지금 새 천 년의 벽두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감추어진 역사의 진실을 배워야 한다. 삶의 의미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데 있다. 한 번 혹은 몇 번의 패배로 물러나는 미완성의 패배가 아니라 어떤 시련도 절망도 좌절도 끝내 거부하고, 끝없이 패배하는 삶을 한없이 긍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야 한다. 나는 믿는다. 우리는 패배하고 신은 승리하며, 우리는 죽지만 신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진실을.

한두 번의 패배에도 숨어버리고 몇 차례의 절망에도 포기하는 나는 과연, 끝없이 패배하는 삶을 한없이 긍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이내 운명으로 삼을 수 있을까.

- 박충,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포이에마) 중에서